

해남, ‘AI·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 도약 박차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와 LS그룹의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은 직접 투자만도 3조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일자리 3만여명이 창출되고 직·간접 경제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와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주여건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해남군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시급한 과제로 1단계

해남읍~솔라시도·마산~산이 도로 조기 개통 정부 건의
명현관 군수 “일자리·인구 증가 등 지역 전반 변화 예상”

5.6km 공사가 시작된 마산~산이면 구간 지방도 806호선 확포장 공사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2단계 구간 11.1km의 조속한 시행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마산면 상등교차로에서 산이면 노송리의 1단계 구간은 2028년 완공될 예정으로, 산이면 노송리에서 대진교차로까지 잔여구간이 완료되면 해남읍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까지 18분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국가시데이터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는 2028년까지 전체 도로의 개통을 앞

당기기 위해 잔여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동시에 해남읍과 솔라시도간 전용도로 개설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해남읍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까지 12분대까지 단축돼 무안 남악(18분)보다 가깝게 된다.

최근 박지원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이와 관련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해남읍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해남은 AI·에너지 수도의 심장으로서 해남은 물론 전남 전체에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창출해내게 될 것이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전무후무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은 산학관연 협의체를 통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따른 새로운 인구전략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해남읍을 비롯한 해남 전역과의 상생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명현관 해남군수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현장을 찾아 태양광 발전소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방안 등을 점검했다.

영암, 한전에 송전선로 반대 입장 전달

우승희 군수, 한전 본사 방문...사전 협의·대안 촉구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난 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우승희 군수는 이날 한전 전력계통부사와 면담 시간을 갖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영암군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광주·전남 6개 시·군을 경유하는 대형 전력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영암군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등 4개 읍·면 15개 법정리가 예정 구간에 포함돼 있다.

군은 지난 9월 ‘국민주권시대 역행

하는 고압송전선로 사업 중단’ 입장문을 내는 등 영암군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건설 방식에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설명과 대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승희 군수는 “주민의 건강과 재산, 지역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한전은 일방적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먼저 지역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송전철탑 방식을 지양하고, 고속도로나 국도를 활용한 지중화 방식 전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우승희 영암군수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국내의 전문가들이 최근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움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보전·신재생에너지 상생 모색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움 성료...국내외 전문가 150여명 참석

신안군은 최근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 ‘제14회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움’을 개최. 프랑스와 대만 등 해외 연구진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철새 서식지 보전과 상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리방안(부제: 자연과 기술의 공존)’을 주제로 진행됐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의 핵심 거점인 신안군이 해상풍력 개발과 생태 보전 간의 균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포지움의 1부 발표 세션에서는 김영남 박사(해양환경공단), 총향홍 박사(국립대만대학교), 이후승 박사(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해 철새 모니터링, 해양보호구역 관리, 대만 해협 해상풍력 발전소의 바닷새 다양성 영향, 해상풍력과 철새 서식지의 조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장 밍티스트 티보 박사(일

본 훗카이도대학교), 빙기창 박사(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소), 양승빈 박사(주식회사 리프 대표)가 일본 철새의 해상 이동 및 해상 풍력 개발에 대한 우려, 신안군의 조류 서식 현황과 생태관광, 연안 에너지 개발과 조류 생태계 시공간 변화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사례를 공유했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이 EAAF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속 가능한 철새·서식지 보전에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바닷새 보전과 해양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진도, 산란 서식지 공모 선정

2026~2030년...40억원 규모

진도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수산자원조성사업-산란, 서식장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꽃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조도면 관매도 해역에 꽃게 산란지와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진도군은 2024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11월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진도 꽃게는 전남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전국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봄철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총 9번의 꽃게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진도를 대표하는 수산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꽃게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군은 꽃게방류와 산란, 서식장 정화 사업 등을 통해 꽃게 자원 회복에 힘써왔으며, 이번 공모 선정은 이러한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꽃게의 산란, 서식 환경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지역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적십자회비,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따뜻한 연결



후원계좌 : 광주은행 060-107-000514 적십자사광주전남